가톨릭정보
칼럼 + 교회 상식 + 문화 산책

기획시리즈-성인 열전 3

아시시의 빈자
St. Francis (성 프란치스코)

성인명	프란치스코 (Francis)
축일	10월 4일
성인구분	성인
신분	부제, 설립자
활동지역	아시시(Assisi)
활동연도	1182?-1226년
같은이름	방지거, 프란체스꼬, 프란체스꾸스,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쿠스, 프란치스꼬, 프란치스꾸스, 프란치스쿠스, 프랜시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순수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하느님께 다가 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백작인 귀족가정의 부유함 속에서 태어나 온갖 파티와 유흥을 일삼았던 그는 1205년 갑작스러운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모든 것을 버린 채 청빈하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마태 5,8).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지상의 사물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천상의 사물을 찾을 것이며, 영적으로 하느님을 흠숭하여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다.

로마에서 북쪽으로 약 180킬로미터 되는 곳에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도시, 아씨시가 있다. 그 곳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이 있는데, 성당 안에는 13~4세기 화가 조토가 그린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가 총 28개의 조각으로 장엄하게 그려져 있다.

부자인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난 프란치스코 디 베르나르도네는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해 파티와 유흥을 즐기면서 방탕하게 살았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부유한 생활을 즐기는 그였지만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였고 순수한 마음과 깊은 배려심,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다,
조토, 아씨시 성프란치스코대성당, 1297~99.

'가난'과 결혼하다

당시 사회는 상업의 급격한 발달로 부와 빈곤의 격차가 심하고 이념대립과 계급의 경쟁도 치열해서 갈등과 불화로 인한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다. 프란치스코 또한 전쟁포로로 감옥에서 1년을 살았다. 또한 중병으로 인해 혼자 고립된 생활을 2년가량 하게 되는데, 그 고립의 시간들이 프란치스코의 영적인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 보나벤뚜라가 쓴 전기에 따르면 '역경은 사람의 정신적인 지각을 예리하게 하는데 좋은 수단이다. 하느님은 영혼이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오랜 병고와 고립으로 그를 낮추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출병하러 가던 길에 하느님 계시를 받게 된 프란치스코는 그 후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오직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데 모든 시간을 바친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부'와 '권력'에 물든 사람들의 온갖 이기심과 위선, 비참함과 폭력성 그리고 부패로 얼룩져 있는 모습이었다. 성인은 그런 사회 속에서 무시당하고 배척당해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나환자, 거지, 가난한 자들을 만나게 된다. 평소 예민하고 청결했던 성인에게 나환자와의 대면은 매우 어려운 '시련'이었다. 그러나 그는 '육을 버리고 영을 따르라'는 하느님 음성을 듣게 되고, 나환자에게 입을 맞추고는 그들과 함께 움막에서 지내는 신비를 경험한다.

'평화'를 외치며 세상을 구원하다

결코 평화롭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던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가 전한 '평화'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고 이후 그의 마음에는 무시와 멸시, 증오나 미움이 들어설 공간이 없게 된다. 오직 '형제애'만이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한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 16,24)라는 구절을 듣게 되면서 프란치스코의 삶의 방향은 점점 더 확고해져 갔다.

"프란치스코야.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작고 허름한 '성 다미아노 성당'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기서 '허물어져가는 집'은 당시의 피폐된 교회의 실상을 이야기한다. 그는 먼저 쓰러져가는 '성 다미아노 성당'의 재건에 힘을 쓴다.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사용하다가 들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에 프란치스코는 미련 없이 집을 나간다. 이후 그는 거지차림으로 다니며 사람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다녔다. 이러한 그에게 반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말한 것을 실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을 말하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노센트 3세는 이런 그의 모습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노센트 교황은 '기울어 있는 교회를 성 프란치스코가 세워 올리는 꿈'을 꾼다. 이는 곧 하느님의 계시였다. 이후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정식 수도회가 된다. 이후에 수도회를 통한 여러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전역에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르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는 우리가 사는 자연이 하느님의 일부라고 여기며 길가의 꽃들과 나무, 늑대 등에게도 설교를 하였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동물과 식물의 수호성인'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신비로 인해 '예수님 탄생'에 특별한 애착이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재연되는 '마굿간 탄생' 이벤트도 성 프란치스코가 먼저 시작하였고, 성인들 중 처음으로 말년에 몸에 성흔 (stigmata)이 나타난 성인이기도 하다.

하느님께 받은 평화를 세상에 전하다

봉건적 사회구조와 새로운 이념간의 대립과 갈등속에 살았던 성인의 삶은 오늘날 빠르게 돌아가는 산업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신앙은 시대상을 반영한다. 평화롭지 않았던 시대를 산 프란치스코 성인은 평화이신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과 평화를 실천함에 한 뼘의 벽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살았다.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성인.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영적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톨릭 개혁을 주도하는 현재의 교황도 닮고 자 하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도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외침, 2018년 1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김나윤 기자]

부활
제 3주일
2023년
04월 23일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엠마오의 저녁식사〉 카라바조,
1601-160, 런던 국립 미술관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사도행전2,14.22ㄴ-33
# 화답송	시편 16(15),1-2ㄱ과 5.7-8.9-10.11(◎ 11ㄱ 참조)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 제 2독서	베드로 1서1,17-21
# 복음 환호송	루카 24,32 참조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루카 복음24,13-35 〈빵을 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 성가번호	입당 129 봉헌 219 성체 504 파견 130

성 당 소 식

새로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문명선	– 가족, 교우
• 백봉화	– 가족, 오경선(원선시오) 가족, 황태진(필립보) 가족, 박화성(헬레나)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이동현(요셉)	– 가족
• 최예생	– 김 스텔라
• 정혜자	– 가족
• 정창웅(그레고리오)	– 가족
• 백경목(요셉)	– 가족
• 박소희	– 송진영(마리스텔라)
• 이기영(요셉), 이강희(세실리아)	– 이종실(프란치스코) 가족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데레사)	– 임 안나
• 하연승(요한) 가족	– 하 데레사
• 오혜숙(요안나)	– 오은주(로사)
• 오드리 시아 리	– 가족
• 올드브릿지 구역	– 박화성(헬레나)
• 이긍주(베드로), 이보현(요안나)	– 채미영(데레사)
• 이문식(더글라스), 이은아(데레사)	가정 – 오은주(로사)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4/16 주일 헌금 (151명) $1,080
- 2차헌금 (유틸리티) $534
- 감사헌금 $600
  - 이순재($100) 이문식($500)
- 교무금 $1,420
  - 염기선(4) 임영자(3-5) 우영인(3-4)
  - 하건철(3-4) 박정훈(1-5) 전광수(3-4)
  - 김현걸(3-4)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4/7까지 약정 금액은 $31,310.14 (목표금액의 84.62%)입니다.

• 메타천 교구내의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3 Bishop's Annual Appeal 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율리안나	방진숙(데레사)

2차 헌금

• 4월 30일: Catholic Relief Services & Native/ Black American Collection

4/25(화) – 4/28(금)까지 평일 미사가 없습니다. 경당에서 말씀의 전례와 성체 분배는 있을 예정입니다.

성당 건물 관리를 위하여, 주일 한국어 미사 후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밖에서 잠글 예정이오니 성당 문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미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예비자 교리서($8/권) 구매 신청하신 분들은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14일(주일) 친교실

이스트브런스윅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4월 23일(주일) 친교실 회의실

썸머셋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4월 30일(주일) 친교실 또는 성당 앞 공원

요셉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5월 7일(주일) 친교실 회의실

사우스브런스윅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5월 7일(주일) 친교실

올드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5월 7일(주일) 친교실

유스그룹 주관 제 1회 OLM 탁구 토너먼트

• 일시 및 장소: 4월 30일(주일) 오후 1시 친교실
• 참가비: $5/인
• 다양한 상품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미공동제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모회 떡볶이 판매

• 탁구 토너먼트 행사 동안 자모회에서 떡볶이($5) 를 판매합니다.

본당 유지 관리 현황 (County FD 점검 후 후속 조치 중)

• 천장으로부터 18인치의 공간을 두고 친교실 선반 짐 적재 완료
• 청소도구 보관실 조명 설치 완료
• 성당 비상구 표시등 점검 및 수리 완료
•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확립 중

유스그룹 커피 쿠폰 판매

• 유스그룹 학생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캡슐커피 스테이션을 친교실에서 운영중이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말 씀 의 전 례

제1독서: 사도행전2,14.22ㄴ-33

오순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베드로 1서1,17-21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 없고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복음 24,13-35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 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셨다." (루카 24,17)